

“감독님, 오래도록 함께 해요”



지난 29일 오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6 타이거즈 KBO 리그'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의 경기에서 KIA가 이범호의 끝내기 안타로 5-4의 승리를 거두며 6연승을 질주했다. 9회말 1사 1·2루에서 끝내기 안타로 승리를 이끈 이범호가 김기태 감독으로 부터 포옹을 받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김기태 감독-주장 이범호 '찰떡궁합'

13년만의 끝내기 이범호 “대타 기용 신의 한수” 김 감독 “범호, 수비 차처...주장의 희생 고맙다”

미안한 마음의 사령탑과 고마운 마음의 주장. KIA 타이거즈의 '찰떡 궁합' 김기태 감독과 주장 이범호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29일 LG 트윈스와의 홈경기에서 5-4 끝내기 승의 기쁨을 누렸다. 지난해 '역전의 명수'의 위력을 살리지 못했던 KIA의 시즌 첫 끝내기이자 6연승을 찍는 값진 승리였다.
끝내기의 중심에는 '캡틴' 이범호가 있었다. 이날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이범호는 대타로 들어간 7회 타석에서는 삼진으로 돌아섰지만 4-4로 맞선 9회 1사 1·2루에서 맞은 두 번째 타석에서는 이동현을 상대로 좌측 선상으로 향하는 2루타를 터트리면서 주

인공이 됐다. 이범호의 개인 통산 3호 끝내기. 한화 시절이었던 2003년 4월9일 대전 LG전에서 끝내기 홈런을 친 이후 13년 만에 기록된 이범호의 끝내기 쇼였다.
이날 경기 전 김기태 감독은 취재진으로부터 “선수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신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고마운 선수 몇 명을 꼽아주라”는 부탁을 받았다.
김 감독은 평소 선수들의 이름을 꼭 집어서 “잘한다, 못한다”를 잘 언급하지 않는다. 수훈 선수에 대해서도 많은 이들이 같이 고생하고 희생하고 있다며 신중하게 이름을 언급한다. 그러나 이날 “굳이 한 명을 꼽으려면 캡틴을 꼽겠다”면서 이범호의 이름을 꺼냈다.

김 감독은 “자기 운동도 해야하고, 내가 화나고 그랬을 때 선수들 커버도 해주고 여러 가지로 바쁘고 고생이 많다”면서 이범호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그 마음이 전달됐을까? 이날 경기의 피날레는 컨디션 난조로 빠져있던 이범호가 화려하게 장식했다.
이범호는 경기가 끝난 뒤 “어떻게 알고 감독님이 2번 자리에 나를 넣으셨다. 신의 한 수”라며 웃었다. 7회 이범호는 2번으로 나왔던 노수광을 대신해 선두타자로 들어갔다. 7·8회 공격이 삼자범퇴로 끝났지만 9회에는 끝내기 찬스에서 이범호의 타석이 돌아왔다. 결과는 해피엔딩이었다.
이범호는 “첫 타석에서 삼진을 당하고 들어오면서 미안하기도 했고 대타로 나오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벤치에서 쉬는 동안 선수들이 나가서 만들어 놓은 거였다. 뒤에 김주찬이 좋으니까 내가 병살만 치지 말자는 생각이었다. 후배들이 만들어 놓은 밥상에 손가락을 얹

은 부분이다”고 밝혔다.
1사 1·2루. 이범호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는 하지만 경험 많은 선수인데다 다음 타석에 뜨거운 타격의 김주찬이 기다리고 있던 만큼 상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승부였다.
김 감독은 “대타로 나오고 나서 교체해 주려고 했는데 본인도 괜찮다고 수비를 나가겠다고 했다. 타순이 한바퀴 돌았는데 공교롭게 그렇게 됐다”고 끝내기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경기 전 주장으로서의 희생과 미안함에 대해 이야기했던 사령탑. 이범호는 감독님의 그 마음에 감사하고 힘이 난다.
이범호는 “감독님하고 궁합이 잘 맞는 것 같다. 더 노력하라고 고생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모르겠다(웃음). 내 선수생활 끝날 때까지 감독님과 함께하고 싶다. 내가 잘해서 오래오래 하실 수 있게 힘이 되어드리고 싶다”고 스승에 대한 마음을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진우 골절상” 연승에도 웃지 못하는 감독

덕아웃 T 특·독

▲저도 놀랐어요 = 친 사람이나 잡은 사람이나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매경기 '미친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외야수 김호영이다. 끝내기 승이 나왔던 지난 29일에는 경기 시작과 함께 김호영의 호수비쇼가 펼쳐졌다. 양현종이 1사에서 LG 손주인에게 좌전안타를 맞았다. 이어 박용택의 타구가 우중간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2루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등장한 김호영이 공을 낚아채면서 중견수 플라이가 기록됐다. 그리고 스타트를 끊었던 손주인까지 아웃이 되면서 '참조 병살'이 만들어졌다. 모두를 감탄하게 하였던 수비. 김호영도 “저도 놀랐어요”라며 속스럽게 웃었다.
▲저도 다행이에요 = 이범호의 끝내기 안타에 크게 안도를 했던 이가 있다. 고영우는 9회 무사 2루에서 번트 임무를 맡았지만 공이 높게 뜨면서 3루수 플라이로 돌아야 했다. 가슴을 졸였던 고영우는 다행히 김호영의 내야안타에 이어 이범호의 끝내기 안타가 나오면서 비로소 웃을 수 있었다. “다행이었다”고 가슴을 쓸어내린 고영우의 뒤에서 “저도 다행이다”며 웃던 또 한 사람이 있었다. 9회 선두타자로 나와 2루타를 때린 이흥구. 하지만 7회 백창수에게 동점 스리런을 허용한 게 미안하고

아쉬웠던 포수 이흥구였다.
▲오늘이 마지막이네 = 지난 30일 챔피언스필드는 임창용을 인터뷰하기 위해 찾은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1일 징계가 풀리면서 마운드로 복귀하게 된 임창용. 이에 김광수가 “오늘이 마지막이다”고 웃음을 지었다. 시즌 초반 위기 상황에서 마무리로 만점 역할을 해줬던 김광수는 “(마무리로) 마지막 날이다. 임창용 선배가 들어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은 마음을 전했다.
▲안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 지난 30일 LG와의 경기에 앞서 취재진과 자리를 가졌던 김기태 감독이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다”며 굳은 표정이 됐다. 김 감독이 전한 소식은 김진우의 발가락 부상 소식이었다.
전날 아이를 안고 경기장을 찾아 김 감독에게 인사를 하고 갔던 김진우가 퇴근 후 집에서 부상을 당한 것이다. 김진우는 넘어지려는 아기를 받으려다 침대 모서리에 왼발을 부딪치면서 엄지 발가락 골절상을 입었다. 반김스를 하고 4주를 보낸 뒤 4주 정도 재활 과정을 보내야 하는 상태. 퓨처스리그에서 실전 피칭을 하면서 복구에 속도를 내던 상태에서 입은 부상이라 KIA에게는 실망스러운 소식이었다. 선발 고민 속 전해진 김진우의 부상에 김 감독은 연승 중에도 웃지 못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맞대결 강정호-이대호 희비

강, 안타에 호수비·이는 '잠잠'

메이저리거 2년 차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가 새내기 메이저리거 이대호(34·시애틀 매리너스)와 맞대결에서 팀의 승리를 이끌며 웃었다.
강정호는 지난 30일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세이프 필드에서 계속된 시애틀과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인터리그 방문 타석에 뜨거운 타격의 김주찬이 기다리고 있던 만큼 상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승부였다.
김 감독은 “대타로 나오고 나서 교체해 주려고 했는데 본인도 괜찮다고 수비를 나가겠다고 했다. 타순이 한바퀴 돌았는데 공교롭게 그렇게 됐다”고 끝내기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경기 전 주장으로서의 희생과 미안함에 대해 이야기했던 사령탑. 이범호는 감독님의 그 마음에 감사하고 힘이 난다.
이범호는 “감독님하고 궁합이 잘 맞는 것 같다. 더 노력하라고 고생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모르겠다(웃음). 내 선수생활 끝날 때까지 감독님과 함께하고 싶다. 내가 잘해서 오래오래 하실 수 있게 힘이 되어드리고 싶다”고 스승에 대한 마음을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시애틀 4번 타자 벨스 크루스의 잘 맞은 타구를 역동적으로 잡아낸 뒤 3루수-2루수-1루수로 이어지는 병살 플레이로 연결했다. 강정호의 호수비로 초반 위기를 넘긴 피츠버그는 시애틀을 8-1로 제압하고 2연패에서 벗어났다.
시애틀의 6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한 이대호는 내셔널리그의 생소한 투수들을 상대로 잠잠했다. 2회말 2루수 앞 땅볼로 물러난 이대호는 5회말 무사 2루에서는 유격수 앞 땅볼로 주자의 진루를 돕지 못하고 물러났다. 이대호는 7회말에는 바뀐 투수 A.J. 슈켈의 체인지업에 연거푸 헛스윙한 끝에 삼진을 당했다.
/연합뉴스



펠프스, 5회 연속 올림픽 출전

금메달 18개 등 올림픽 메달 22개... 2012년 은퇴 선언 음주·과속 6개월 자격정지 등 물의... “결국 돌아왔다”

‘수영왕제’ 마이클 펠프스(31)가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하면서 5회 연속 출전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펠프스는 30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헤마 센추리링크 센터에서 열린 리우올림픽 미국 수영 대표선발전 남자 점영 200m 결승에서 1분54초84로 1위를 차지했다.
올해 점영 200m 1위 기록은 라솔로 체흐(헝가리)가 영국 런던에서 열린 유럽 수영 선수권대회에서 세운 1분52초91이다.
펠프스는 남자 수영선수 사상 최초로 5회 연속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다. 펠프스는 2000년 시드니 대회에 만 15세로 올림픽 첫 출전을 했다. 당시에는 점영 200m 결승에서 5위에 그쳤지만,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 6개와 동메달 2개로 전설을 쓰기 시작했다.
이어 펠프스는 2008년 베이징 올림

픽에서 출전한 8종목 모두 금메달을 수확해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금메달 7개를 딴 마크 스피츠의 단일 올림픽 최다 금메달 기록을 36년 만에 경신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금메달 4개와 은메달 2개를 땀고, 대회 종료 후 허는 이를 게 없다는 이유로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했다.
4번의 올림픽에서 펠프스가 따 낸 메달은 모두 22개(금 18개·은 2개·동 2개)로 하계 올림픽 사상 개인 최다다. 2014년 4월 현역 복귀를 선언한 펠프스는 그해 9월 자신의 고향인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음주·과속 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돼 10월 초 미국 수영연맹으로부터 6개월 자격 정지를 당하기도 했다.
펠프스는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곳에 돌아왔다.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밤 올림픽 출전권을 얻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영·호남 합동 거니에신산 원정대 출국 광주일보가 후원하는 '2016 영·호남 합동 거니에신산 원정대'가 지난 30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중국 사천성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원정대는 25일까지 중국 사천성 리탕고원의 해발 6204m의 거니에신산 완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